6월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

노현우T

-이 시험은 ‘모의고사’이다. 즉 수능을 미리 연습해볼 수 있는 중요 기회이므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식사, 시험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까지 본인의 루틴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를 받아 보면 ‘실수’로 틀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실수라고 해도 그것이 반복되면 ‘실력’이다. 정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실수 수첩’이라도 준비해서 각 과목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번 읽어 봐라.

-지구과학1에서 4번 혹은 5번(혹은 6번)은 낚시성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던가.)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12번 혹은 13번은 자료의 양이 많은 문제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므로 빠르게 넘겨도 좋다. 18번 혹은 19번 둘 중 한 문항은 생각보다 쉽다.

-모든 과목은 첫 번째 풀이(1회독)을 빨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별로 문제당 제한 시간을 정해 두어라. 가령 지구과학1 시험을 보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풀이를 생각하다가 15초 정도 생각의 진전 없이 맴돌고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스킵하라.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정도만 해결하고 12분 정도의 시간 내로 1회독을 했다면 정말 훌륭하다.

-첫 번째 풀이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그림 없이 해결을 한다. 그 후 두번 째 풀이(정답까지 도출되지 않았거나, 접근을 못 해서 다시 시도하는 경우)부터는 최대한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풀이를 하도록 한다.

-1회독이 끝나면 무조건 OMR 카드에 답까지 도출한 문제는 마킹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지 여백에 답 개수를 세어 놓도록 한다. 부족한 정답 번호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두고 그 번호가 나머지 문제의 답이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남은 문제에 접근하도록 한다.

-시험 시간 30분 중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즉 5분이 남았을 때부터는 새로운 문제풀이는 포기한다. 어차피 그 문제 풀 확률은 매우 낮고 그 시간에 다른 문제 검토하는 편이 더 점수 기댓값이 높다. 이 때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답 개수가 제일 부족한 번호로 남은 문제를 전부 찍고 다만 이 때 해당 번호가 답이 될 수 없는 문항이 있다면(예를 들어 ㄱ 선지는 확실히 오답인데 내가 찍으려 하는 번호가 ㄱ 선지를 포함할 경우) 그 다음으로 부족한 번호로 찍기로 한다. 물론 이 때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다음 부족한 번호를 찍던가 이 때부터는 본인이 좋아하는 번호로 찍어도 무방하겠다.

-시험이 끝나면 피곤하겠지만 채점을 해보면서 반드시 복기를 하도록 한다. 이 때 복기란 “나는 왜 이 문제를 틀렸는가? 어떤 것이 원인이지? 반복되는 나의 나쁜 습관?, 컨디션 문제?, 개념 부족?. 자료 해석 능력의 부족?”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해서 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얘기하지만 시험은 상대 평가다. 이 시험이 엄청 어렵게 느껴진다면 남들도 그럴 것이다. 만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